

대화 능력은 부모만이 가르칠 수 있다

나는 이런저런 사물에 '이론'이라는 말을 붙이기를 좋아한다. 이론이라는 말에 긴장했던 분들은 내가 대단치 않은 내용을 이론이라고 갖다 붙인 것을 듣고는 실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론 중에 '축전지 이론(Battery Theory)'이라고 있다.

축전지를 쓰려면 +극, -극을 연결하는 두 줄이 있어야 한다. 나는 이 두 줄을 말하기와 쓰기에 비유한다. 축전지 용량이 제아무리 크더라도 전선이 연결되지 않으면 전기를 쓸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마찬가지로 아무리 지식이 풍부하더라도 남에게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기 의견을 글로 이해시킬 수 없다면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과 마찬가지로인 것이다.

수업 중에 학생을 지목하여 의견을 물어 보면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별 대단한 내용이 아닌데도 긴장한다. 잘 모르겠다고 하고, 갑자기 물어서 생각이 안 난다고 한다. 수업 시간 질문도 사전에 예고해야 하는가? 한참 뜬금 없이 들어더니 앞서 대답한 학생과 같은 생각이라고 간단히 처리해 버린다. 대화 능력이 부족한 것이다. 대화 능력은 부모만이 가르칠 수 있다.

부모 자식 간의 대화는 무엇보다도 분위기가 중요하다. 우리 집 분위기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학교 갔다 돌아온 자녀가 부모 있는 곳으로 오는가. 부모를 피해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가? 부모가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갔을 때 거실에 있던 자녀가 방으로 들어가는가. 방에 있던 자녀가 거실로 나오는가? 분위기인 것이다.

부모 자식 간의 대화에도 격이 있어야 한다. 대화의 격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겠다. 먼저 지난 일주일간 자녀와 대화한 내용을 모두 적는다. 적을 만한 대화 내용이 몇 개 안 되면 굳이 기억해 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어차피 소와 닭의 관계로 판명이 났기 때문이다.

대화 내용 중 자녀에게 ▲ 저주를 퍼붓는 내용("넌 안 돼!"), ▲ 비난한 내용("그 따위로 하냐?"), ▲ 질책한 내용("몇 번이나 말했냐?"), ▲ 추궁한 내용("도대체 왜 그러냐?"), ▲ 지시한 내용("TV 꺼!"), ▲ 의견을 교환한 내용, ▲ 자녀의 의향을 물어 본 내용, ▲

부탁한 내용, ▲ 칭찬한 내용, ▲ 잘 되기를 기원해 준 내용으로 분류한다.

그 다음에 지난 일주일간 대화한 각각의 내용이 어느 부류에 해당하는지 횡수를 표시한다. 저주형, 비난형, 질책형, 추궁형, 지시형에 속하는 대화 내용은 몇 퍼센트나 되는가?

30% 정도라면 자녀들은 부모를 대할 때 긴장할 것이다. 50% 정도라면 되도록 접촉을 피하려고 할 것이다. 70%보다 높다면 자녀들은 가출을 검토한 지 오래 되었을 것이다. 다만 여건이 안 되어서 잠시 얹혀지내는 것뿐이지, 머지않아 나갈 것이다. 빈민가의 부모-자녀 관계를 분석한 해외 연구 발표를 보면 부모 자식 간의 대화 중 80%가 질책과 명령이었다고 한다.

공부도 중요하고, 대학 입시도 중요하고, 훌륭한 사회인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것은 서로 나갔다 들어오면 반갑고, 할 말이 많고, 좋아하고, 잘 했다고 칭찬하고, 잘 될 거라고 서로를 성원하는 것이다. 분위기가 대화의 선결 사항인 것이다.

우리말을 잘 해야 영어도 잘 한다

30여 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 학생들이 영어를 얼마나 잘

할 수 있을지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그 비결은 간단하다.

한국말을 잘 하는 학생이 영어도 잘 한다. 한국말을 답답하게 말하는 사람은 영어도 답답하다. 한국말을 조리 있게 하는 사람은 영어도 빈틈없이 말한다. 발음이 어색해도 좋고, 자주 머뭇거리는데도 참 잘 한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말로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 영어로 말할 때도 좌중을 웃긴다.

학원을 오래 다녀 영어 단어를 많이 외우고, 해외 어학 연수를 다녀와 영어 발음이 좋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영어를 잘 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단어를 많이 안다고, 목소리가 좋다고 말을 잘 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가? 언어 감각이 있어야 한국어, 외국어를 잘 할 수 있다. 그런데 언어 감각은 어릴 적부터 부모가 자녀와 대화를 통해 가르쳐야 한다.

조기 영어 교육에 열중하는 학부모들에게 꼭 전해 주고 싶은 말이 있다. 자녀가 영어를 잘 하기를 바란다면, 우선 한국말을 잘 하는 연습을 시켜야 한다. 연습 비결도 알려 주겠다.

탁구 치듯 대화하라

부모가 자녀에게 대화 능력을 키워 주려면 탁구 경기를 떠올리

면 된다. 탁구를 재미있게 치려면 서로 공을 주고받는 것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게 좋다.

만일 탁구를 가르치는 사람이 처음부터 너무 세게 치거나, 너무 구석진 곳으로만 공을 보내면 초보자는 공을 받아치지 못할 것이다. 가르치는 사람은 공을 주워 오는 시간을 기다리느라 지루하고, 받아넘기지 못한 초보자는 공 집으러 다니다가 탁구가 싫어질 것이다.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 모두 그만치고 싶고, 다시는 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부모 자식 간의 대화 유형을 탁구에 비유해 설명해 보자. 부모가 말한다.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니까.” 처음 서브에 강한 스매싱을 넣은 것이다. 못 받아칠 것이다. 이 대화는 한 번으로 마무리되었다. 탁구를 칠 때 상대방이 처음부터 너무 받아치기 어렵게 공을 넘기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는가? 그만 하자고 할 것이다.

재미있게 공이 오가는 탁구 경기도 있다. “어쩌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니?” 자녀가 받아치기 좋은 공이다. 공이 넘어오면 부모가 또 받는다. “나도 그런 생각은 못 해 봤다.” 자녀가 신이 나서 되받는다. “동생한테 이야기해 줄까?” 공이 계속 오가며 새로운 대화를 유도한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 말씀드려라. 얼마나 좋아하시겠냐?”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대화 훈련을 받은 자녀는 사회에 나가 의사소통 기술이 좋을 것이고, 실력 이상의 실력을 인정받을 것이다.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답답하게 표현하고, 두서 없이 대답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대화를 끝낼 것이다. 다시 만날 약속도 하지 않을 것이다. 우연히 만나더라도 서둘러 자리를 피할 것이다.

아는 것은 많은데 대화를 못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깊은 산 속 동굴에 들어가서 벽을 마주보고 도를 닦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대오각성하여 큰 도를 깨쳤다 하더라도 시중에 내려와 포교 활동은 하지 못할 것이다. 깨달은 바를 신도들에게 설명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말로 천 냥 예금도 한다

옛 속담에 ‘말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다. 21세기에는 이 정도로의 속담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21세기에 잘 통할 만한 업그레이드 된 속담은 무엇인가? ‘먼저 말해야 천냥 빚을 갚는다.’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대화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듯하다. 그래서 추가해야 할 것이 사전 대화법(pre-communication)의 중요성

이다. 매 학기마다 겪는 이야기를 해 보자.

두 학생이 있다. 한 학생이 어느 날 불쑥 나타나서 장학금 추천서를 써 달라고 종이를 내민다. 다른 학생은 며칠 전 복도에서 나를 보고 다가왔다. 장학금을 신청하고 싶은데 추천서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 마감일도 이야기한다. 내가 먼저 말한다. “내가 써 줄게.”

사전 의사소통인 셈이다. 나는 어차피 두 학생에게 모두 추천서를 써 주어야 한다. 그런데 어쩐지 복도에서 미리 이야기한 학생의 추천서를 더욱 정성스럽게 쓰게 되곤 한다. 그 학생이 꼭 장학금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 ‘먼저 말해야 천 냥 빚도 갚고 천 냥 예금도 한다.’

부모 자식 간에도 사전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한 자녀는 부모에게 TV를 새로 구입할까 생각 중이라고 말한다. 생각하고 있는 화면 크기, 모델 이름도 이야기한다. 부모님 의견도 묻는다. 다른 자녀는 소문 없이 새 TV를 산다. 몇 달 뒤에 부모가 우연히 보고 물어 보니, 미처 말하지 못했다고 한다. 여러분 같으면 두 자녀 중 어느 자녀에게 더 정이 가는가? 어느 집 TV가 더 마음에 드는가? 어느 자녀에게 유산을 몽땅 다 남겨 주고 싶은가?

사회 활동도 마찬가지다. 한 사원은 상사에게 그가 하는 일의 경과를 자주 알린다. 다른 사원은 도통 말이 없다. 일이 잘 되었을

때, 일이 잘못되었을 때 두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이 다를 것이다. 한쪽 사원에게는 잘 되면 포상을 적극 추천할 것이고, 일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적극 해명해 줄 것이다. 다른 사원에게는 회사 규정대로 처리할 것이다.

자녀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부모가 핀잔을 준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 자녀는 말을 얹고 지내자고 결심할 것이다. 사전 대화를 피하는 습성이 생기는 것이다. 사회에 나가서도 말을 아끼다가 낙오할 것이다.

사전 의사소통법을 잘 배운 자녀는 가정 생활, 사회 생활에서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런 습성은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배워야 한다. 그런데 강조할 점이 있다. 학원이 아니다. 부모가 가르쳐야 한다.

글쓰기도 말하기와 마찬가지로, 어려서부터 부모가 가르쳐야 한다. 다섯 줄만 써 보라고 인간적으로 부탁한다. 식구들에게 자랑한다. 이렇게 글을 쉽게 쓰는 줄은 몰랐다고. 집안에 행사를 치른 후, 가족 여행을 다녀온 후 또 부탁한다. 쓴 글을 벽에 붙여 놓는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글 쓴 것이 대견스럽다고 되뇌는 것이다. 써 준 글이 말이 되든 안 되든 감동한 표정을 짓는다. 소리내어 두세 번씩 읽어 본다. 듣기에 거북하면 다시 쓰겠다고 할 것이다. 글쓰기도 탁구 경기인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될 일이 또 있다. 글쓰기 학원에 등록해 버리는 것이다. 부모와 연습해야 한다.

24시간 안에 80쪽 보고서를 만든다

지금 나는 대학에서 3학년 필수과목과 대학원 전공과목을 가르친다. 3학년에 진입하는 학생들은 대학교 1, 2학년 교양 과정에서 전공학과와 별 연관을 맺지 못하고 지내 왔다. 3학년 1학기가 실질적으로는 전공학과에서 배우는 첫 학기인 셈이다.

나는 지난 34년간 인간공학을 가르쳐 왔다. 전공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가장 역점을 두어 가르치는 것은 공부하는 방법과 문제를 푸는 방법, 그리고 말하기, 쓰기이다. 교양 과정을 지내며 헤이해진 학생들을 긴장시키기 위한 강의 방법도 동원한다.

학생들을 긴장시키는 방법을 말하겠다. 매월 말이 되면 지난 한 달간 배운 내용을 토대로 중간시험을 친다. 학기말이 되면 기말